

# 새로 나온 詩集

## 만경강

채규관 지음

66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 문단에 나온 이래 「바람속에 서서」 「풀길 산책」 「어린 이 놀이터에서」 등의 시집을 통해 독특한 지적 시세계를 펼치고 있는 시인의 신작시집.

「출어기」 연작 40편과 「만경강에 드리운 낚시줄」 연작 10편, 장시 「혼돈의 늪」의 3부로 구성된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진실이나 진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의식상의 절대성을 표현하기 위한” 치열한 지적 모색작업의 과정을 보여준다.

신원문화사 / B6신 / 140면 / 2000원

## 달빛도 이불깃에

洪周希 지음

83년 「심상」 신인상으로 데뷔, 그동안 「강변 아파트」 「까마귀의 섬」 등의 시집을 펴냈던 시인의 제3시집.

「눈은 내리는데」 「강이 보이는 나의 집」 「등불이 되어」 「기다리는 마음」의 4부로 구성, 총 62편의 시들을 선보이고 있는 이번 시집은 체험적 직관에 근거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시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리움을 위장 · 왜곡시킴으로써 자아방어 수단으로 동원한 일종의 反動形”으로서의 기다림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평론가 박진환씨의 평.

문학세계사 / B6신 / 110면 / 2400원

## 외로운 밤에는 별이 많아지는 까닭을 알겠다

편집위원회 엮음

부제 ‘엘리트 직장인들이 가꾼 사랑의 하모니’가 암시하듯, 현재 다양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127인 시들을 「사랑이라고 혹은 슬픔이라고 말한 때」 「그리움은 늘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대, 삶의 의미를 쫓는 이여」 「회색빛 거리에 홀로 선 고독하나」의 4부로 나누어 묶었다.

일상을 소재로 한 서정시를 비롯, 고단한 직장생활의 애환을 담은 시편들이 아마추어다운 풋풋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가출판사 / A5 / 128면 / 3000원

## 바람 일기

제해만 지음

67년 「대구매일」 신춘문예와 「시문학」 천료로 등단, 「도시의 서쪽」 「꿈같은 흐름」 등의

시집을 펴내면서 대한민국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시인의 제3시집.

자유분방, 무정처, 무형무색, 빈 손 빈 마음 등을 상징하는 ‘바람’을 주요 소재로 한 77편의 시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자연과 사물의 숨은 영혼찾기와 삶에 대한 신앙적 자세, 유년 회상이나 향수의식을 표출한 시”들이라는 것이 시인의 自評.

인문당 / B6신 / 128면 / 2000원

## 百年後에 부르고 싶은 노래

具錫逢 지음

56년 「學園文學賞」 수상으로 등단한 이래, 시작활동 뿐 아니라 방송드라마 · 역사인물 발굴 · 전설 취재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보여주었던 시인의 시선집.

“...우리들의 뒤로는 훌훌히 버리고 뜬 푸른 산이 있었고, 가난한 이들의 집과 황량해진 논밭이 조울고 있었다. // - 거기 지나쳐 간 갖가지 슬픈 實話가 있었다...”라는 표제시를 비롯해서 88년 작고하기까지 발표했던 62편의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햇빛출판사 / B6변형 / 184면 / 2500원

## 붉은 울음꽃

박제천 외 지음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운동주문학상’ 수상작 품집.

본상 수상자인 박제천, 우수상 수상자인 김현숙의 시편들과 함께 조영수, 감태준, 이영춘, 이충이, 이형기 등 역대 수상자들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장자詩」 이후 “사물의 존재, 고통받는 영혼, 상상력의 우주가 어떻게 삶의 실체로 형상화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번 수상작에 대한 심사평.

동광출판사 / B6신 / 132면 / 2500원

## 작은 사랑 하나

김명숙 지음

자신의 신앙체험을 진솔하게 詩化한 시인의 첫시집.

자신의 삶 속에 깃들어 있는 信心을 깔끔하게 이미지화한 90편의 시들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달맞이꽃」 「차 한잔」 「아가」의 4부로 나누어 실려 있는데, 신과 동일시되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바라보는 사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성바로출판사 / B6신 / 134면 / 2000원

## 얼어붙은 입

문형렬 외 지음

대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詩作활동을 펴고 있는 동인 ‘오늘의 시’ 제5집.

장옥관, 정상섭, 정화진, 김재진, 박진형, 송재학, 임봉훈, 문형렬 등 동인들의 신작시 38편과 함께 초대시인 조기현과 신인 김명숙, 최예선의 시편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류철균, 정대호, 장정일, 구광본, 강현국의 평론과 최석하의 시세계에 대한 특집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책나무 / A5신 / 160면 / 2500원

## 깨어지는 벽 앞에 서서

전영애 지음

현직 독문과 교수이자 활발한 번역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저자의 첫시집.

1989년 11월부터 1990년 1월까지의 독일체류 당시 체험했던 ‘베를린 장벽 철거’에 대한 감회를 국내의 분단상황과 연결시킨 시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 7부로 구성, 북독일과 ‘브란덴부르크 문’ · 서베를린 · 동독 등지의 여행기와 여행 후의 감회가 담긴 140여편의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열음사 / B6신 / 274면 / 3000원

## 아름다운 잘못된 모자이크

권오욱 지음

「시문학」 추천완료로 등단한 이래 시집 「겨울안개」 「사랑의 프리즘」 「움직이는 슬픔」 「슬픔으로 인한 잠」 등을 출간한 바 있는 시인의 신작시집.

단시 형식의 「연가」 100편이 수록된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전통적 연사에서 보여주는 정태적 구조속에서의 그리움과 恨의 정서가 아닌 치열한 열정으로 사랑을 찾아가는 동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 권말에 평론가 김선학씨의 평론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문학세계사 / B6신 / 118면 / 2400원

## 바람이 바람에게

朴瑞惠 외 지음

박서혜, 조인자, 최문자, 한영옥, 구순희, 김광욱 등 여류시인 6인으로 구성된 ‘和答’의 세번째 동인지집.

평범한 일상의 구체적 본질을 드러내려는 작업과 함께 화해와 포괄의 정신을 현실화해내려는 휴머니즘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절제되고 긴장된 언어의 구사가 돋보인다. 평론가 이견청씨는 이들의 시를 “본질탐구의 정신과 순수지향의 언어로 이루어진 좋은 형상물”이라고 평.

문학세계사 / B6신 / 114면 / 2400원

##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요

한미순 지음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이후,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왕성한 詩作활동을 펴고 있는 시인의 첫시집.

현실에 대한 절망의 시편들과 함께 사랑과 용서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을 감사하는 시편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애뜻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는데, 총 84편의 시들이 「마지막 부르는 이름」 「입이여」 「세월」 「땅에서도 살아요」 「옥합을 깨뜨려」의 5부로 나누어 실려 있다. 권말에 시인 정공체씨의 평론을 함께 수록.

예찬사 / A5 / 104면 / 2500원

## 사월과 오월사이

김세완 지음

84년 「월간문학」 신인상 당선으로 문단에 데뷔, 「들꽃의 이름으로」 이후 펴내는 시인의 제2시집.

「詩」 ‘통일’ ‘5월’을 주요 소재로 이들에 대한 ‘절망의 시편’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음처럼 어두운 겨울 속을 / 숨속여 흐르던 강물, / 이제 가슴을 활짝 열었느냐 / 가슴을 열고 푸른 물줄기 / 온누리에 내뿜기 시작했느냐”라는 표제시를 비롯해서 59편의 시들을 3부로 나누어 묶었다.

인문당 / B6신 / 132면 / 2000원

## 겨울산에 일어선 바람

송동균 지음

「현대문학」 천료로 등단한 이래 「琴床洞의 산자락」 「井邑까지」 「저문 황토길」 「흑장미」 「琴床洞의 靈歌」 등의 시집을 상재한 바 있는 시인의 제6시집.

질은 향토색을 풍기면서 훈훈한 인간애와 도시인의 고독을 그린 「風」 「스산한 바람」을 비롯해서 「자연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는 「여울목」 연작시 등 73편의 시들을 3부로 나누어 묶었다.

미래문화사 / A5 / 140면 / 2800원